

한라포커스 아이 마음건강, 함께 지켜주세요 (하)

대부분 부모, 자녀 자해해도 '깜깜'

정서문제 조기 발견과 관리 위해선 가정 역할 중요 교육청·지자체 협업 강화해 정신건강 인식 바뀌야

“도덕도덕... 괜찮아”, “넌 혼자야 아니야”, “힘들고 지칠 땐 내게 기대”, “넌 소중한 사람이야”.

지난 13일 한림고등학교 위(Wee)클래스에 들어서자 이련 손끝씨가 반겼다. 한림고 1~3학년 학생들이 직접 쓴, 자기에게 해주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이란다. 힘들 땐 곁에서 이 말을 건네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지만, 그럴 데가 없는 아이들은 마음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안세영 한림고 전문상담교사는 “성향에 따라 힘들음을 더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10대 시기에 단단한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자해를 해도 부모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알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내고 넘어가는 데 그친다”고 했다. 학교에서 만난 상담교사들은 가정

에서의 정서 지원이 없으면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모섭 표선고 전문상담교사는 “문제를 발견하고 상담·치료를 통해 좋아진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도움을 줬다는 것”이라고 했고, 문명희 제주서중 전문상담교사도 “가정에서 정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아이와의 바른 대화를 위한 부모 교육 등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학생은 자신의 문제가 알려지거나 검사 이력이 관리된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실제와 달리 응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대



한림고등학교 위(Wee)클래스 게시판에 학생들이 손글씨로 쓴 '도덕도덕... 괜찮아', '넌 혼자야 아니야' 등의 글이 붙어있다.

상도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희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장학사는 “기존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올해 추진단으로 승격하면서 지원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접근하려 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서행동특성검사서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의 전문가 연계율을 높이고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관심군 학생은 교육청의 위(Wee)센터와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지자체가 운영·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가에서 심층평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는데, 올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2차 조치를 받은 관심군 학생은 전체(1167명)의 11%(128명) 정도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동·청소년 영역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총원해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도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비 오는 날 제주찾은 관광객들 비가 내린 17일 제주시 칠성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제2공항 반대단체도 예산안 부동의 규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날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의 제2공항 특위 예산안 중액 요구 거부와 관련해 “제주도는 도의회의와 도민의 권리의무를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특위’ 활동예산만을 부동의로 전액 삭감시켰다”며 “제주도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까지 월권하며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2공항만을 전제로 한 주변 개발사업에만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공항 건설에만 혈안이 돼 도민갈등을 풀려는 어떤 사업계획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석기자

월평동서 50대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

제주시 월평동에서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제주소방서와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2분

쯤 제주시 월평동 A(58)씨가 본인 자택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A씨의 친척으로부터 119에 접수됐다. 김현석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에 찔린 흔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돼 가족,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4·3 역사·정의 이해야 바로 세웠다”

제주4·3단체, 한국사 고교교과서 개선 환영

“앞으로 올바른 교과서 통해 4·3 진실 제대로 인식할 것”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의 역사 기술을 대폭 개선한 데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11월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4·3의 역사를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하면서 과거의 이념적 기술을 탈피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여기에 오기까지 4·3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2017년부터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검인

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 개발사업’이 주효했다”며 “새로운 청소년 세대가 올바른 교과서를 통해 4·3의 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전환의 시기가 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이날 교과서 개선에 따른 성명을 통해 “제주4·3의 역사와 정의를 이해야 바로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기술한 과오가 사라지면서 7만여 유족들의 한을 풀게 됐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교과서에 제주4·3을 정명하고 올바르게 수록함으로써, 언말연시를 앞두고 유족들에게 뜻 깊은 선물을 안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침몰 대성호 실종선원들 어디에...

해경 29일만에 집중수색 종료... 현재 9명 실종

제주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한 집중수색이 사고 발생 29일만인 17일 종료됐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대성호 사고 관련 집중수색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비병행 수색으로 전환한다.

제주해경은 대성호 사고 당일인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29일간 함·선 656척, 항공기 166대, 조명탄 725발을 투입해 해상수색을 실시했다. 또 제주도 서부 해안가에서는 해경·소방·지자체 공무원·민간봉사자 등 6647명이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해군함정 및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서 소나를 이용한 수중탐색 결과, 해군함정에서 대성호 침몰 위치로부터 북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수심 85m 지점에서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지난 8일에는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해 대성호 선미로 추정되는 선체 주변에서 시신 2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이날 발견된 시신 2구는 모두 베트남 선원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이다.

해경은 시신 2구 발견 이후로도 16일까지 ROV를 이용한 수중탐색을 진행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실종



선체에 불이 붙은 대성호가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제공

자는 없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29일 동안 민·관·군이 최선을 다해 수색했으나 더 많은 실종자를 가족 품에 데려다 주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승선원 12명을 태우고 통영항을 출항해 그달 19일 오전 4시 전후로 발생한 화재로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탄 후 침몰했다. 이 사고로 1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으며, 지난 8일 발견된 베트남 선원 시신 2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원 9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승선원 12명 중 6명은 베트남 국적, 나머지 6명은 한국 국적이다. 김현석기자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교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이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향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서귀포시정 소식

제20회 서귀포겨울바다 국제펜션수영대회 개최

- 행사일시 : 2020. 1. 1(수) 10:00
- 행사장소 : 서귀포 중문 색달해수욕장
- 행사내용 : 펜션수영, 어린이 소망 모래밭 만들기, 펜션 씨름왕 선발, 펜션인 경주대회, 원바다 거북알 선물찾기, 초대 가수 ‘전태만상’ 윤수현 축하공연 등
- ※ 입수자 특전 : 고급드론, 액션캠 등 푸짐한 경품, 호텔 숙박권(20명), 기념메달과 대형타올 증정(500명 한정)
- ※ 서귀포시 SNS공유 이벤트에서도 행복한 경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참가대상 : 제한없음 (단, 지병이 있거나 심신이 허약한 자는 제외)
- 참가비 : 무료
- 참가신청 : 전화 및 팩스(739-9201) 접수 / 행사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 행사문의 : 서귀포시관광협의회 ☎ 739-7201

2019 해빙은 서귀포시 행사 개최 알림

- 행사일시 : 2019. 12. 22(일) 18:00~20:00
- 행사장소 :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 참가대상 : 서귀포시민 200여명
- 주최/주관 : 서귀포시 / 서귀포시민의책임기워줄회
- 주요행사내용 : 독후감시상식, 2020시민의책임포식, 북콘서트
- 오픈 공연 : 크리스마스 캐롤송 및 색소폰 연주
- 최성에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 부모교육 특강, 저자 사인회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 760-3675

서귀포국민체육센터 1~2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알림

- 운영기간 : 2020. 1. 7(화) ~ 2. 29(토) / 매주 월요일, 설 연휴 제외
- 세부 프로그램

구분	인원	교육시간	1·2월사용료	개강일	비고
수영	주중반	2개월(주 4회/화·금)반별 시간 다름	성인 월 60,000원 어린이 월 30,000원	1.7(화)	인터넷접수 및 현장접수(반별 인원 다름)
	주말반	2개월(주 2회/토·일)반별 시간 다름		1.11(토)	
요가	주중반	2개월(주 4회/화·금)09:30-10:30	성인 31,000원	1.7(화)	인터넷접수 30명 현장접수 10명(3회)
	주말반	2개월(주 2회/토·일)19:30-20:30	성인 13,000원	1.11(토)	인터넷접수 30명 현장접수 10명(13회)
서킷 트레이닝	30명	2개월(주 4회/화·금)11:00-12:00	성인 31,000원	1.7(화)	인터넷접수 30명 현장접수 10명(13회)

- 신청방법 : 인터넷(http://damoa.jeu.kr), 현장(서귀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1층) 신청
- 신청기간 : 2019. 12. 21(토) ~ ※ 프로그램별 접수기간 확인
- 문의사항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 739-0363, 서귀포시체육회 ☎ 733-0355

2020년 성신일출도서관 겨울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 신청기간 : 2019. 12. 24(화) ~ 정면마감 시
- 신청대상 :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15명
- 운영기간 : 2020. 1. 13(월) ~ 1. 16(목) / 14:00~16:00
- 운영장소 : 성신일출도서관 문화관관실
- 운영주체 : 환경, 빌리 쓰는 지구이야기
- 습지의 종류와 제주의 습지 알아보기, 함께 만드는 생명통로 보드게임 만들기, 폐품을 이용한 놀이기구 등
- 시상내용 - 성적우수자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1명 - 이수자에게 수료증 수여(종합성적 60점 이상)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 / 선착순 모집
- 접수 및 문의 : 성신일출도서관 ☎ 760-3763